

情報가 통해야 情도 통한다

남북한의 TV를 상호개방케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인적교류」와 「물적교류」를 위한 온갖 노력이 제법 활발해지는 듯하다가, 요즈음 갑자기 주저 앉게 되는가 싶은 시점에서 나온 반가운 소식이다.

이쪽은 NTSC방식이고 저쪽은 PAL이라는 등의 기술적인 차이

장 바람직하나, 설사 합의가 안되더라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개방, 실시함도 좋을 것 같다.

「단한 시스템」에서 「열린 시스템」으로 가는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이것이 실현되기만 하면 다른 인적, 물적 교류의 촉진에도 결정적인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정보」가 통해야 「정」이 통하는 법이다.

정보화사회칼럼

남북한의 정적교류

와 소요경비 등 그것을 실현시키려면 넘어야 할 고비가 수많이 있으나, 일단 노력해볼 가치가 충분히 있다. 민족의 동질성 회복에 유익할 뿐 아니라 통일에 이르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데올로기의 선전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매일 공기를 마시듯이 시청하고 있는 것처럼 생생한 생활정보를 있는 그대로 서로가 시청할 수만 있다면 이것만으로도 통일이 상당히 이미 이루어진거나 다름바 없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산이 많아 기왕에 개방할 바에는 최근 급격히 발달하고 있는 통신위성에 의한 TV방송을 채택하기를 권하고 싶다. 물론 서로 개방하자는 원칙에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하는 것이 가

통신위성은 수동형에서 능동형으로 바뀌고 정지화 정보통신도 되며, 단일 기능에서 복합기능으로 발전하고 있다. 기능당 발사와 운영비용도 더욱 싸지고 신뢰성이 좋아지고 있다. 이에 따른 비용조달이 쉽지 않지만 방법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가령 정부에서 설치를 검토중이라는, 남북한간의 경제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남북경제협력기금」을 이것에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20조에 달한다는 각종 기금의 전용도 생각할 수 있다.

북한에 차관을 제공하거나 교역을 확대하는데 지원하는 것 등에 비하면 훨씬 경제적이고 뜻깊은 이용이다. 지난해에 성공적으로 치루었던 올림픽경기에 비하면 간단한 일 일수도 있다.



손원일
〈아시아나항공 고문〉

동독대변혁에도 TV가 '한몫'

최근 동독에서 일어난 대변혁에 TV가 큰 몫을 했음을 우리는 잘 안다. 거기서는 정적 교류가 훨씬 앞서서 이루어졌다. 약 20년전부터 동독에서 서독의 TV를 시청할 수 있었고, 거의 80%에 달한 동독사람이 일상적으로 시청해 온 것이 이번에 드디어 국경의 물리적 장벽을 허물게 만든 원동력이었다고 말한다.

중미의 쿠바에서는 바다를 건너 먼거리란 조건 아래서 미국이 인공위선과 비행선을 동원해서 텔레비전방송을 보내고 있다. 많은 경비를 들여 매일 3시간씩 방영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매일 6시간씩 보내게 될 것이라고 한다.

「미디어가 곧 메시지다」라고 하고 「지구촌」이란 말을 만든 캐나다의 맥쿠루한 교수가 오래전에 예견했던 바와 같이 이 지구는 오늘날 통신, 특히 정지 통신위성의 발달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의 「마을」이 된 것과 다름없게 되었다. 일일정보생활권이 된 것이다.

정보의 전달속도는 나날이 더욱 빨라지고 있으며, 그 양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52억이란 주민이 모두 「우주선 지구호」란 배를 같이 타고 가면서 매일 매일 일어난 정보를 즉시 실시간으로 공유하게 되었으니, 이게 바로 정보화사회의 한 단면이 아닐 수 없다.

개방과 개혁으로 소용돌이 치면서 자유사회로의 대변혁이 진행되고 있는 이 세계사적 전환기에서 TV의 상호개방을 제안하게 됨은 너무나 당연한 흐름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을 북한에 제

시했을 때 과연 그들이 어떠한 논리로 어떻게 대응해 올지 몹시 궁금해진다.

국제사회에서의 교류는 그간 줄곧 인적, 물적 교류가 중심이 되어 왔다. 그러나 여기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인적교류에 있어서는 그것이 인간 본연의 기본욕구요, 기본권이라는 인식이 정립되고 완전개방 쪽으로 촉진되고 있다.

물적 교류에 있어서도 개방의 촉진을 기본으로 삼아 왔고, 그 기본 약속이 이른바 GATT, 즉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었다. 그런데 근년에 이르러 이 협정에 정보와 서비스를 포함시켜서 역시 그 개방을 촉진하자는 쪽으로 협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것이 1986년에 채택된 「우루과이라운드」의 초점이고, 앞으로 이 점에 있어서의 개방이 세계적으로 가속화될 것이다.

우리의 입장으로 보면 OECD의 가입이나 IMF의 제8조국으로의 이행과 같이 너무 빨리 진행되는 느낌이 분명히 있긴 하나, 국력의 신장과 더불어 어쩔수 없이 감당해 가야 할 실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면 -가장 좋은 방어가 곧 공격- 이라는 식으로 이것을 장기적으로 보아 하나의 호기로 삼으려는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옳은 자세일 것이다.

‘눈가리고 아웅’식 대응은 금물

정보분야에서의 개방압력에 대한 우리의 대응도 이러한 관점에서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간의 우리의 대응자세를 보노라면 그



남북 한의 TV 상호개방은 민족의 동질성 회복에 유익할 뿐 아니라 통일에 이르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이데올로기의 선전이 아닌 일상생활의 생생한 생활정보를 있는 그대로 서로가 시청할 수만 있다면 통일은 이미 이루어진 거나 다를바 없다.



저 얼마큼 시간을 벌게 하자는 노력에만 몰두했지 진짜 효과적인 준비에는 별반 뚜렷한 진전이 없었다.

당분간 대외역지, 대내개방이라는 방침이 서있는 것처럼 보였으면서도 실제로 대내개방에 주저주저하다가 기회를 잃어버렸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칙은 개방에 두고, 예외를 규제하도록 해야 할 터인데도 실제로는 정반대로 시간만 낭비하여 왔다. 일단 모든 민간기업 행위를 전면 금지시킨 다음 조금씩 예외적으로 풀어주는 식이니 이래가지고는 시기를 맞출 수 없다.

여기서도 수입제도에서 처럼 “포지티브 시스템”이 아니라 “네가티브 시스템”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네가티브 시스템”이란 수입의 경우 수입 금지품목을 명시하고, 이것들 이외는 다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것이고, “포지티브 시스템”이란 수입해 올 수 있는 것만 명시하는 제도이다.

전기통신공사의 민영화가 자꾸만 뒤로 미루어지고, 그 복수화가 언제될지 모르는 형편이다. 또한 공중 VAN사업의 복수화 조치도 너무 늦게 취해졌고, 네트워크의 구성이나 기술도입, 인재의 양성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미국과의 개방약속 시한은 바짝 다가오고 있다.

앞서가고 있는 나라와의 기술, 이용격차가 좁혀지기는 커녕 오히려 벌어지고, VISDN도 이동통신도 말만 무성하지 실제적 진전은 별반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행정전산망 같은 것도 83년에

시작하여 어마어마한 세금을 사용하고도 아직 실제 운영에 이르지 못하고 있지만, 누구하나 책임졌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고 제대로 해명한 바도 있는 것 같지 않다. 드라카가 최근에 내놓은 「새로운 현실」에서 단언한 것처럼 「정부가 벌인 “사업”치고 성공한 경우가 거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준 셈인가.

정보통신분야에서 추진해야 할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다할 실제적인 - 희망안이 아닌 - 실천을 위한 일정표가 제시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 또한 많다.

그러므로 남북TV의 개방제한 소식에 접하여 이를 반기면서도 한편으로 우리 텔레비전의 고급화와 성숙화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민간방송의 허용과 CATV의 활성화도 물론 빼놓을 수 없는 과제이다.

또하나 통신위성에 의한 일본방송의 시청에 대한 대응도 앞서 말한 각도에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직접 수신되는 부산 남해연안 지역 외에도 통신위성 수신이 이미 10만대가 넘었고, 내년엔 민간방송이 시청할 수 있게 되면 더욱 급격히 증가할 터인데, 남북개방과 관련해서 생각도 해보아야 할 것이다.

앞서 인용한 드라카의 「새로운 현실」에서도 지적이 되었지만 이미 시대는 크게 바뀌고 있다. 국경이 갖는 의미가 재검토되고, 군사력의 생산성을 재평가하고 있는 마당에 통신개방의 흐름을 거꾸로 돌려 규제하기란 이제 불가능한 일이 된 듯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아갈 길은 우리 텔레비전의 위상을 보다 자유화하는 쪽으로 더욱 내용을 알차게 하며, 앞서가는 세계수준에 하루속히 끌어올리는 것이 시급한 당면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지구촌’이란 말을 모두들 흔히 쓰게 되는 것은 어떠한 분야에서, 어떤 문제를 풀어야 할 때건 모두가 지구적 시각에서 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개방의 물결에 역행은 불가능

오늘날 현대인은 음식보다 정보에 더 의존해서 살아간다. 정보의 양과 질에 의해서 그 개인의 삶의 내용이 제한 받으며, 이에 의해서 행동을 결정한다. 개인의 미래가 받아지는 정보에 의해 좌우되기도 한다. 남한에 사는 우리나라 북한에 사는 사람이나 이같은 기본패턴에 있어선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 가운데서도 TV의 위력은 지구의 어디서나 아주 크고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우리가 꿈에서도 갈망하는 통일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삶의 실상을 송두리째 나타내며, 누구나가 공기를 마시듯 시청하지 않고서는 못배기는 TV개방이 서신왕래나 가무단 공연, 팩시밀리, 라디오방송 등보다 몇십배 더 효과적이라고 믿는다.

이 분야에 관련된 분들이 그 실현시기가 언제일지 모를 뿐이지, 전세가가 정보화사회로 치닫은 과정에서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보다 깊은 연구와 준비를 해주기를 부탁하여 마지 않는 바이다. ■